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7
2020 년 12 월 27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87373293

**kr.theanarchistlibrary.org**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7

아나키스트연대

2020 년 12 월 27 일

# 차례

1. [성탄절은원래슬픈날이라지만] . . . . . 3
2. [신 (新) 신분제를위한교육에관하여] . . . . . 4

# 1. [성탄절은원래슬픈날이라지만]

성탄절을마냥기뻐할수만은없는것은성서가전하는예수탄생이전의기록들때문이다. 마태오복음서 2 장은예수의탄생을알아본동방박사들이헤로데왕을찾아와이사실을알리자, 헤로데왕이베들레헴과그일대에사는두살이하사내아이들을모조리죽인이야기를전한다. 이렇게성탄절은그첫시작부터너무나슬프고끔찍한이야기로시작되었다.

복음서의이이야기가역사적사실인지아닌지, 그것은관심의영역이아니다. 다만복음서기자가전하고싶었던내용은확실하다. 권력을가진이들은그권력을지키기위해이런끔찍한일들을자행하는데거리낌이없다는사실이다. 이는권력이지니는만고불변의특성일것이다.

마태오복음서에반해루가복음서는또다른예수탄생의풍경을전한다. 신의아들이라는예수가태어난곳이화려한궁궐이나안락한어딘가가아니라여관마굿간이요갓태어난예수를말구유에눕혔다는것이다. 앞서도이야기했지만역사적사실여부에는관심이없다. 다만이이야기를통해복음서기자가전하고싶어했던이야기를, 우리는또다시명확하게읽어낼수있다. 세상을구하는사람들은화려하고으스대는치들이아니라이렇게보잘것없는곳에, 눈에띄지않게숨죽이고있다는사실이다. 조용히, 소리없이, 하지만분명그자리에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복음서기자는분명한어조로전한다.

2020 년이번성탄절역시누군가는울고, 누군가는자신의권력을과시하는성탄절이되었다. LG 트윈타워에서일하던청소노동자들은노동조합을만들었다는이유로집단해고통보를받아이노조파괴공작에맞서느라 LG 트윈타워로비에서한뎃잠을자며이따금출입을막아대는용역들과힘겹게싸움을벌이고있다. 그에반해 LG 그룹구광모회장은연말을맞아이웃사랑성금 120 억원을기탁하고늘쌓아오던’ 좋은그룹이미지’ 를도모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을고용한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역시구광모회장의고모들인구훤미, 구미정씨가각각 50% 씩지분을가진 LG 가족그룹이니, LG 왕국의영속을위해 120 억원을뿌릴수는있어도감히노동조합을만들어왕국에반기를드는짓거리는용서할수없다는그마음을, 너무나잘알겠다.

이렇게성탄절은권력에도전할것같은이들이늘고통받는역사를되풀이해왔다. 하지만그럼에도우리는이슬픔이그저슬픔으로끝나지않을것임을잘알고있고, 늘함께이슬픔을이겨낼것이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 일, LG 트윈타워 1 층로비에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들의고용승계를염원하는이들의선물이하나둘모여들어선물로크리스마스트리가만들어졌다. 바람이숭숭들어오는건물대리석바닥에누워잠을자야한대도, 핫팩으로겨우이추위에맞서야하고밥한번먹으러나갔다오려면몇십분

을용역과드잡이질해야하는이가장낮은곳에서바로자기와친지들만잘먹고잘살면된다는권력을무너뜨릴, 세상이희망과행복으로가득찰수있게하는연대가실존하고있다. 그리하여결국자기만아는그불행에빠진이들까지모두구해내는그구원의역사가몇번이고, 몇십몇천번이고다시쓰이기시작할것이다.

성탄절은원래슬픈날이라지만이슬픔가운데바로역설적이게도구원의희망이있다.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들의투쟁이승리하고, 이를시작으로권력와자기보위에눈이먼 LG 왕국이무너지는일, 그를통해예수가바랐던모두가행복한세상을노동대중의손으로직접건설하는것. 이야말로성탄절에즈음하여예수정신을온전히계승하는올바른기도제목이될것이다.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 내년에도계속일하고싶어요""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865.html
" 앞에선 120 억성금, 뒤로는노조파괴…' 표리부동' LG 그룹의' 민낯' :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5

## 2. [신 (新) 신분제를위한교육에관하여]

현교육제도가유산계급의계급대물림을위한것임이갈수록노골적으로드러나고있다. 기사에따르면저소득층중고소득층의학업성취도를따라갈수있는이들은고작 3% 에불과하다. 이는현학벌제도가우파들이주장하듯개인의노력여부에달린것이아닌계급문제와직결된문제임을보여주고있다.

이상으로서의교육은대중이사회를살아가면서필요한교양을배우고각자에게존재하는재능을바탕으로자유롭게자신의능력을개발하며사회를살아가는구성원으로의협력의가치에대해배우는것일것이다. 그리고그과정속에서다른이의이익이나인정을위함이아닌, 자신을위하여모두가평등하고공정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

하지만학생들은작금의교육과정속에서무엇을배우고어떤취급을받는가? 이상과는반대로학생들은개인의특성과상관없이국가와자본이요구하는가치를주입식으로암기하기를요구받는다. 그리고사회를더불어사는구성원으로서의협력의가치가아닌자유시장이라는야만에던져진



경쟁자로서의경쟁의가치관을받아들이기를상대평가제도속에서강요받는다.

하물며이런망가진교육과정속에서국가는개인에게학습을위한제대로된환경조차보장해주지않는다. 국가가주관하여사회에서의지위를보장하는각종시험은부실한공교육환경에서배운이들에게는가혹하며사교육을배울수록, 고비용의, 보다고비용의사교육을배우는이들에게유리하다. 물론이혜택을누릴수있는것은자본계급으로평등과공정은애초부터찾아볼수없다.

이렇게국가와자본에의해저학력으로몰려난이들은공공연히소외된다. 대학졸업여부, 학벌의여부에따른혐오는이미사회에만연해있으며 XX 대학졸업장이라는카스트증명서에따라저학력대중의저임금은정당화당하고지적능력에대해낙인이찍힌다.

심지어사회정의로부터도이들은소외된다. 작금의공정담론에서내세워지는것은소위'명문대생'들의아픔일뿐이들의목소리는누구에게도대변되지못한다. 반대로공정이라는단어를이용하여명문기득권층의기득권은다시한번정당화된다. 이모두계급의구분을목적으로하는교육제도때문이다.

혹자는현교육체제내에서'평등한경쟁'을보장해야한다고하나상술하였듯근본부터잘못된체제내에서어떻게평등과공정을찾겠는가? 권위자들이자신의입맛에따라주입을강요하는무의미한가치, 국가가보장하는졸업증이라는이름의계급증명서그리고이들과결탁하여이에대한접근성을판매하는자본, 이들자본, 국가권위는모두한통속이다. 구조적모순덩이인체제속에서는평등은찾을수없다.

결국현교육제도는자본계급이자신의위치를사수하고상속하기위한또하나의도구일뿐이다.

진실로모두가자신의학업적성취, 자신을위해자신의능력을개발하고사회성을기르며협력의가치를기르기위해서는구조적인변혁이필요하다. 이모든부조리를만들어내는자본, 그리고자본과결탁한국가를타파해야한다. 그리고학생들을포함해모든민중이비로소평등하게의사참여할수있는민주적교육제도속에서진실로자본계급이아닌노동계급을위한교육을만들어내야한다.

" 저소득가구서성적상위권, 100 명중 3 명…" 자취감춘개천용""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6020.html